

Central News

News

담당_김미선

빵빵데이 등 협회 주요사업 중추 역할 담당 중앙회 기획분과위원회 새롭게 출범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4월 5일 오후 5시 중앙회관 회의실에서 기획분과위원회의를 갖고 빵빵데이 등 2006년도 협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올해 기획분과위원장을 새롭게 편성하고 처음 갖는 회의인 까닭에 본격적인 기획업무 수행에 앞서 (사)대한제과협회 사업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기획분과위원회는 김봉수 위원장을 필두로 이용숙 부위원장, 강연숙, 김영석, 신승녕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기획분과위원들은 임기 동안 협회는 물론 업계 전체의 기술발전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특히 그동안 쌓인 풍부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빵빵데이 등 협회의 주요행사를 진두지휘 할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봉수 기획분과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앙회 기획분과의 새로운 자리 매김을 위해 지난해 협회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를 토대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획할 것”이라며 “기획분과위원회는 중앙회 사무처와의 끈끈한 연계를 바탕으로 빵빵데이 등의 주요 협회사업이 매끄럽고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획분과위원회는 협회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10월 10일로 정해진 빵빵데이가 첫 행사인 만큼 인보사업이나 이벤트 등의 기획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제과업계의 힘을 한데 모으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차별화된 행사 마련에 주력하기로 다짐했다.



김봉수 위원장
경인제과제빵학원(인천)



이용숙 부위원장
라미듀뱅코리아(주)



강연숙 위원
현대제과직업전문학교



김영석 위원
밀앤미과자점



신승녕 위원
한국관광대학

지회 통폐합과 지부의 지회 승격 논의 제1차 조직특별위원회 열려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4월 4일 중앙회관 회의실에서 조직특별위원회(이하 조직특위)를 개최했다. 이번 조직특위 구성은 지난 2월 열린 중앙회 제44차 정기총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된 사항으로 지회와 지부를 회원

수에 따라 구분 짓는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조직특위 위원장은 조병천 수석부회장이 맡았으며 유현식 부회장, 홍순찬 조직분과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부임했다. 또 지방지회·지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뜻에서 경기도에서 2명의 위원을, 지방에서 4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이번 조직특위의 구성을 마쳤다.

이날 열린 첫 번째 회의에는 서울시지회의 인접 지역 간 통폐합과 상대적으로 회원수가 많은 경기도 여타 지부의 지회 승격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조병천 위원장은 “협회의 지회·지부 구성은 행정상의 지역단위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다면 중앙회의 직할 개념이 크기 때문에 구별로 지회를 나누고 있는 서울의 경우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통폐합해나가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조직특위는 강제적인 통폐합을 반대하는 서울 지회들의 입장과 거대 지부의 승격문제를 내세운 경기도 지부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조직 체계는 현행 대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되 회원 수에 따라 이사회 의결권을 배분하는 절충안이 나와 다음 회의 개최 시까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별 예선 차질 없이 진행 크림치즈대회 본선 날짜 변경

(사)대한제과협회는 2006 전국크림치즈제품실기경연대회 본선 일자를 변경 공지했다. 당초 5월 26일(금)로 예정돼 있던 크림치즈대회 본선은 경기장 사정으로 하루 연기된 5월 27일(토)에 개최된다. 본선 대회일자만 하루 연기됐을 뿐 올해부터 지역별로 치러지는 크림치즈대회 예선은 대회 규정에 공시된 날짜와 장소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회원업소들이 지난 4월 18일(화)까지 (사)대한제과협회 지회·지부에 접수를 마쳤으며 4월 25일(화) 지회별로 개최되는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에 한해 오는 5월 27일(토)에 있을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

협회 기술발전사업 알리는데 주력 푸드앤토텔 2006 협회홍보부스 참가

(사)대한제과협회는 2006 푸드앤토텔코리아에 참가, 전시장을 찾은 국내외 식품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푸드앤토텔코리아는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으며, 이번 전시회에 공식 후원단체로 참가한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해 열린 2005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기술발전 사업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베이커리〉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관련 서적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Central News

담당_김미선

여성대회 진행사항 반성 및 규정개정 논의 기술분과·지도위원회 개최 예정

(사)대한제과협회 기술분과위원회(위원장 안창현)는 지난 4월 15일 한국제과학교에서 열린 제3회 한국여성제과기술인경연대회의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시상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기술분과·지도위원회를 소집한다. 안창현 기술분과위원장은 이번 회의의 취지에 대해 “앞으로 협회가 주최하는 여러 대회를 보다 공정하고 매끄럽게 치러내기 위해서 지난 대회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여성대회에서 제기된 경기장 설비 및 환경에 따른 경연시간 지연과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 및 도구의 사용 등 경기 진행 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다 세밀하고 엄격한 대회 규정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학교 기술세미나 세부 협의 동경제과학교 중앙회 방문



지난 3월 22일 동경제과학교 하야시 토모코 과장과 동경제과학교 한국교우회 박현희 간사가 (사)대한제과협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해마다 동경제과학교가 (사)대한제과협회와 손잡고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경제과학교 강습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9월 9일(토) 서울 서초동 중앙회 세미나실에서 실시되는 1차 세미나와 9월 14일(목) 부산 국제제과학원에서 개최되는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동경제과학교 양과자과 마쓰다 강사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일본 인기 양과자’ 5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취재_박소희 기자



제과업계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호두협회 세미나실구축기금 1천만 원 기탁



캘리포니아호두협회 미쉘 맥닐 해외마케팅 이사는 협회 세미나실 구축기금으로 1만 달러(한화 1천만 원)를 (사)대한제과협회에 기탁했다. 지난 3월 25일 (사)대한제과협회 회관을 방문한 캘리포니아호두협회 미쉘 맥닐 이사와 손란 한국지사장은 “협회 세미나실이

제과업계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진원지가 되길 바란다”는 기탁의 뜻을 밝히며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에게 1천만 원의 구축기금을 전달했다. 중앙회 김영모 회장은 거액의 기금을 선뜻 기탁한 캘리포니아호두협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제과업계 발전을 위해 값지게 쓰겠다”고 말했다. 기금 전달식 이후 미쉘 맥닐 이사와 손란 지사장은 김영모 회장의 안내로 지난 2월 완공된 세미나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_김영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 주최 식품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 참여

(사)대한제과협회는 지난 3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 주최로 국회 현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식품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사)대한제과협회를 대표해 참가한 조병천 수석부회장, 정일석 사무총장은 베이커리 업계의 재정적 고충사항은 물론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과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달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김선미 의원은 “현행 식품진흥기금이 식품 영업자가 관련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탓에 시·군·구청이 정확한 예산집행 계획 없이 기금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응자사업이라는 기본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사)대한제과협회를 포함한 여러 식품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식품진흥기금 활성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박사는 가칭 식품진흥기금 운용협의회를 만들어 지자체별로 모인 기금 가운데 일부를 중앙정부에 이관해 식중독 예방 대책 등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보수교육’ 주류판매 허용 등 업계 현안 전달 정동영 당의장 직능단체 정책간담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4월 11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주요 회원자격으로 이날 토론회에 초청받은 (사)대한제과협회는 서울시지회장 협의회 김종주 회장, 중앙회 정일석 사무국장이 참가해 베이커리 업계의 복잡다단한 현안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사)대한제과협회는 휴게음식업으로 분류돼 있는 케이크 카페 및 샌드위치 전문점의 업종을 제과점업으로 전환해 빵과 케이크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와인, 삼페인 같은 저알코올 주류의 제과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주류법이 케이크에 와인을 곁들이는 파티문화를 고려할 때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근거 아래 제과점의 주류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도 일반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제과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90% 이상 수입재료에 의존하고 있는 빵·과자 제조의 특성상 제과제빵에 필요한 수입원부재료의 관세를 인하해 과중한 원가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논의했다.

Local News

News

담당_김미선

기술분과위원회 발대식 갖고 활동 시작 광주광역시지회 제37차 정기총회



기술분과위원회 발대식 갖고 활동 시작
광주광역시지회 제37차 정기총회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이기남)는 지난 3월 28일 동구 수기동에 위치한 제일오피스텔 19층 연회장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노총 정수민 의장, 빛고을신용협동조합 최준

휴 이사장 등 광주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내외빈을 비롯해 100여 명의 대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기술분과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돼 대성직업전문학교 강경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모두 23명의 광주광역시지회 기술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지방경기대회 및 기술세미나 등의 기술발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재신임 공삼포 지회장 "결속 힘쓸 터" 경남도지회 제8차 정기총회

경남도지회(지회장 공삼포)는 지난 3월 15일 진해 용원에 위치한 용원횟집에서 제8차 정기총회 및 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경남도지회는 현 공삼포 지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부지회장에 통영시지부 김충권 지부장을, 감사로 거제시지부 원상희 지부장을 재신임했다. 이번 재신임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경남도지회를 이끌어가게 될 공삼포 지회장은 "회원업소의 매출 신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도지회비 인상(안)을 승인받았으며 5월말 체육대회를 개최해 경남 제과인의 결속을 다지기로 결의했다.



식품안전선언문 낭독 지역사회 이목집중 울산광역시지회 제24차 정기총회

울산광역시지회(지회장 황일하)는 지난 3월 22일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지회 세미나실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울산광역시지회 회원 모두가 흰색 위생복 상의에 검은 스카프를 두르고 참가한 가운데 베이커리 업계가 울산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진다는 뜻의 '대시민식품안전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식품안전을 선언하는 울산광역시지회의 모습이 울산방송 UBC 저녁뉴스를 통해 울산 전역으로 방송되면서 지역사회에 이목을 집중시켜 업계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 됐다는 평을 얻었다. 울산광역시지회 황일하 지회장은 선언문 낭독의 의미에 대해 "회원 스스로 품질 좋은 재료를 양심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우리 동네 제과점이 깨끗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크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생크림 믹서기, 전자저울 등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도구나 기계를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전달하는 등 울산광역시지회의 '즐거운 지회 만들기' 사업이 회원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딸기 이벤트 위한 플래카드 제작·배포 인천광역시지회 제37차 정기총회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배인필)는 지난 4월 3일 인천대공원에서 150여 명의 회원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외에서 체육대회를 겸해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는 인천의 각 구별 지부가 서로 단합과 협동을 다짐으로써 회원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회원 화합의 한마당'이 됐다는 평을 얻었다. 이날 우승은 남동구지부가 차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주)선인 주최의 여성기술인경연대회 흥보세미나를 개최해 80여 명의 회원업소 기술인이 참가한 가운데 바닐라 슈가를 활용한 빵과 케이크를 선보였다. 또 딸기축제를 위한 지회 차원의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딸기제품 세미나를 실시하고 플래카드 등의 이벤트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지회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의원 만장일치로 최원도 신임 지회장 선출 대구·경북지회 제35차 정기총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최원도)는 지난 4월 13일 북구 노원 3가에 위치한 지회 세미나실에서 중앙회 조병천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구·경북지회는 지난해

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수지 결산을 승인받은데 이어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어 열린 지부장 이·취임식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대구·경북지회를 맡아 회원 결속과 지역 기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이상태 전임 지회장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신임 18대 수장에 대의원 만장일치로 최원도 신임 지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새로 취임한 최원도 지회장은 "대구지역 베이커리 업계에서 무차별적 할인 마케팅 같은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우수한 오로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ocal News

News

담당_김미선

임채순 신임 지부장 “회합의 지부 만들 터” 수원시지부 제20차 정기총회



‘수원시지부(지부장 임채순)는 지난 2월 28일 수원시지부 세미나실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실적 보고 및 수지 결산 승인을 인정받고 2005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데 이어 김종권 지부장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사무장에는 이덕균 씨가 재무에는 박철규 씨가 각각 선

임됐다. 통영시지부는 지부발전에 공헌한 우수회원 표창 수여식을 갖고 네프파자 점 권영배 회원, 오네뜨제과점 이희주 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관내 경찰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다짐했다.

신제품 및 마케팅기법 개발 계획 구미시지부 제19차 정기총회



구미시지부(지부장 정상기)는 지난 3월 17일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구미지역을 대표하는 10여 명의 내외빈을 비롯해 7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해 자리 빛났다. 정상기 지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고객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마케팅이 이뤄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지부 발전에 공이 큰 회원의 표창을 통해 조영장 부지부장이 구미시장상을 수상했다.

김충권 지부장 만장일치 재선임 통영시지부 제25차 정기총회



통영시지부(지부장 김충권)는 지난 3월 15일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실적 보고 및 수지 결산 승인을 인정받고 2006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데 이어 김충권 지부장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사무장에는 이덕균 씨가 재무에는 박철규 씨가 각각 선

임됐다. 통영시지부는 지부발전에 공헌한 우수회원 표창 수여식을 갖고 네프파자 점 권영배 회원, 오네뜨제과점 이희주 회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관내 경찰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다짐했다.

대한제과협회 지회·지부 인보사업 활발 광주지회 과우봉사회 제13차 정기총회



광주광역시지회 산하의 과우봉사회(회장 이천규)가 지난 3월 28일 동구 수기동에 위치한 제일오피스텔 19층 연회장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과우봉사회 회원들은 35명의 회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앞으로 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해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한 몸 단단히 하는 제과인이 되기로 다짐했다. 이천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언제나 자신의 일처럼 두 팔 걷고 나서주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제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그동안 과우봉사회는 지역의 독거노인과 초등학생을 위한 급식사업에 달마다 동참해왔으며 저소득 주민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는 등 광주지역 대표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베이커리〉의 제과꿈나무 응원 프로젝트 학생이세요? 정기구독료를 파격 할인해드립니다!

월간 〈베이커리〉는 학교·학원에서 제과기술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과꿈나무 응원 프로젝트 ‘학생이세요?’를 진행합니다. 〈베이커리〉를 소속 학교나 학원을 통해 10권 이상 단체로 받으시면 49%나 싸게 정기구독료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마다 학교나 학원으로 도착하는 한 권의 〈베이커리〉가 학생 여러분께 제과기술인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일반 판매가 8,000원×12권 = 96,000원

일반 1년 정기구독료 = 70,000원 ▶ 27%

학생 1년 정기구독료 = 49,000원 ▶ 49%

(일반 정기구독료보다 30% 저렴)

학생 6개월 정기구독료 30,000원

〈베이커리〉 정기구독, 편하게 신청하세요

● 정기구독 연락처 (사)대한제과협회 담당 최영아 02)2055-3347

● 구독료 입금 은행 온라인 계좌번호 국민 068-25-0010-571 예금주 (사)대한제과협회

농협 360-01-036052 예금주 (사)대한제과협회

시민발언 대회 제과협회